

<2015 서울시 9급 국어 총평 및 해설>

* 총평

서울시 시험이 오지선다형 문제에서 사지선다형 문제로 변화함에 따라, 어휘 영역(6문제)의 문제 비중이 다소 높고 비문학 독해(3문제)의 문제 비중이 다소 낮다는 점을 제외하면 국가직 시험과 문제 유형이 유사하게 ‘표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시험이었으며, 어휘와 문학 한두 문제를 제외하면 큰 어려움이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기에 난도는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지는 시험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출제 문항 표

출제 영역	문항 수 (비율) / 작년	특징
문 법	8문항 (40%) / 9문항	구조 문법에서 ‘국어의 특징(1)·음운론(1)·형태론(1)·고전 문법(1)’ 모두 4문제가 출제되었고, 규범문법에서도 ‘맞춤법(2/띄어쓰기 포함)·표준어(1)·외래어 표기법(1)’ 4문제가 출제되었다. 수준은 평이했다.
어 휘	6문항 (30%) / 6문항	지난해에 이어 ‘사자성어(2)·한자 독음(1)·속담(1)·고유어(1)·동음이의어(1)’ 모두 6문제가 출제됨에 따라 어휘 영역 강세 현상을 이어 갔다. 한자 독음 문제의 경우 빈출 한자가 아니어서 실수로 이어질 수 있었다.
문 학	3문항 (15%) / 4문항	평시조와 현대 시 그리고 지식 국어가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으며, 박목월의 <이별가>는 평소 학습이 되어있지 않았으면 어려울 수 있었다. 특히 ‘서울 배경’ 여부를 묻는 문학 지식 문제는 지엽적이고 까다로웠다.
비 문 학	3문항 (15%) / 1문항	문항 수는 지난해보다 늘었으나 제시문의 길이가 길지 않았고, 문제 자체의 난도도 높지 않아 큰 어려움이 없었다. 문장의 논리적 배열 문제 또한 ‘응집성’의 원리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B형/정답 및 해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③	①	②	③	④	②	②	①	②	④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③	④	②	①	②	④	①	④	④	③

1. ③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열둘째[명사] 맨 앞에서부터 세어 모두 열두 개째가 됨을 이르는 말.

(예) 이 라인에서 발견된 불량품이 오늘날 벌써 열둘째입니다.

② 떨어먹다➡떨어먹다[동사] 재산이나 돈을 함부로 써서 몽땅 없애다.

(예) 그는 도박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몽땅 떨어먹었다.

④ 숫병아리➡수평아리

<참고> 옛말에서 ‘ㅎ’ 곡용어이었던 ‘머리[頭], 살[肌], 수[雌], 암[雌], 안[內]’ 등에 다른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 중에서, [ㅎ] 음이 첨가되어 발음되는 단어는 소리 나는 대로(뒤 단어의 첫소리를 거센소리로) 적는다. ‘암-, 수-’가 결합하는 단어의 경우는, 표준어 규정(제7항 다만)에서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닭,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수평아리’를 예시하였다.

2. ①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성장: 成長(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참고> 성장(盛裝): 잘 차려입음. 또는 그런 차림.

(예) 성장을 하고 모임에 참가하다

③ 이상하다: 異常하다(정상적인 상태와 다르다)

<참고> 이상(異狀): 평소와는 다른 상태.

(예) 이상을 발견하다/“근무 중 이상 무!”라고 외치는 군인들의 모습이 늑름하다.

④ 해동: 解凍(풀 해, 얼 동/얼었던 것이 녹아서 풀림)

<참고> 해동(解冬): <불교> 동안거(冬安居)의 끝. 선원에서는 정월 보름날에 끝난다.

3. ②

- <보기>에 사용된 서술 방식은 ‘묘사’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서사

③ 비유 혹은 유추

④ 알 수 없음(결과가 없이 이유만 제시되었으므로 ‘인과’가 아님)

4.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ㄴ의 ‘낙관적으로 전망’과 ㄹ의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중복됨으로써, 두 문장의 응집성이

부여되고 있다. 그리고 ㄷ의 ‘자연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로 보아, 앞 문장에는 ‘자연 환경의 파괴’를 의미하는 ㄱ이 와야 하며, 이 둘은 대등 병렬의 관계로서 ㄹ의 예시 상술문이 되어야 한다. ㄹ의 ‘이런 위기’는 ㄹ의 예시 상술문의 ‘위기 상황’을 지시하므로 ‘ㄴ-ㄹ-ㄱ-ㄷ-ㄹ’의 순서가 가장 적절하다.

5. ④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덩쿨➡덩굴(=넙쿨), ‘눈두덩’과 함께 ‘눈두덩이’도 표준어임, 놀이감➡놀잇감(놀이 또는 아동 교육 현장 따위에서 활용되는 물건이나 재료/‘장난감’과 함께 표준어가 되었음)

② 윗어른➡웃어른(‘아래’와 ‘위’의 대립이 있는 명사 앞에는 ‘윗’을 쓰고, 아래위의 대립이 없는 몇몇 명사 앞에는 접두사 ‘웃-’을 쓴다)

③ ‘계면쩍다’는 ‘겸연(慊然)쩍다’의 변한말로서 둘 다 표준어임, 지리하다➡지루하다, ‘빼지다’는 ‘빼치다(성나거나 못마땅해서 마음이 토라지다)’와 함께 복수 표준어임.

6. ②

- <보기>는 지배적 접사로서의 접미사에 대한 설명이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낯섦’은 ‘낯설다(형용사)’의 명사형이므로, 여기서의 ‘-ㅅ’은 명사형 전성어미이지 접미사가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 ‘-기’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지배적 접사로서의 명사화 접미사임.

③ 낯추다: ‘-추-’는 형용사를 (사)동사로 바꿔주는 지배적 접사로서의 동사화 접미사임.

④ 꽃답다: ‘-답(다)-’은 명사를 형용사로 바꿔주는 지배적 접사로서의 형용사화 접미사임.

7. ②

- ‘대치’는 ‘교체’와 동일한 개념어이다.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술’이 /술/으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끝소리규칙’이며 이는 음운의 ‘교체/대치’에 해당한다. 그리고 /술/의 /ㄷ/과 /하교/의 /ㅎ/이 /ㅌ/으로 변화하는 것은 ‘자음 축약(=유기음화)’에 해당한다.

8.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을망정’은 연결어미이므로 앞의 어간과 붙여 써야 한다.

<참고> 주로 ‘-기에/-니/-니까/-어서+ 망정이지’의 꼴로 쓰이는 ‘망정’은 의존명사이므로 이때는 띄어 써야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있을 V 지라도~ ➡ ~있을지라도(연결어미)~

<참고> ‘지’가 의존명사인 경우는 뒤에 ‘시간의 경과’를 뜻하는 구절이 있는 경우이며, 이때만 앞말과 띄어 쓴다.

③ ~예쁜대신~ ➡ ~예쁜 V 대신~

<참고> ‘대신’은 명사로서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와 다르거나 그와 반대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④ ~들을 V 지~ ➡ ~들을지(연결어미)~

<참고> ②의 경우처럼 ‘지’가 의존명사인 경우는 뒤에 ‘시간의 경과’를 뜻하는 구절이 있어야 한다.

9.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은 ‘어미의 변화’를 일컫는 개념이며 이는 형태론적 특징에 해당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③, ④는 모두 국어의 특질이지만 통사론적인 혹은 구문론적인 특징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10. ④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팜플렛 ➡ 팸플릿

② 리더쉽 ➡ 리더십, 소세지 ➡ 소시지

③ 쇼파 ➡ 소파, 썩크대 ➡ 싱크대, 바디로션 ➡ 보디로션, 슈퍼마켓 ➡ 슈퍼마켓, 스카웃 ➡ 스카우트

11.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보기>는 같은 자음 두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각자병서’와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합용병서’에 대한 글이다. <참고> ‘연서(連書)’는 순경음(唇輕音)을 표기하기 위하여 순음자(唇音字) 밑에 ‘ㅇ’을 이어 쓰는 일로서, ‘뭉’, ‘뎡’, ‘퐁’, ‘뽕’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12.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의 ㉠은 ‘타다02: [1]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에 해당하며, 이와 ‘다의어’의 관계에 있는 것은 ‘타다02: [2]-㉡어떤 조건이나 시간, 기회 등을 이용하다’의 뜻을 지닌 ④의 ‘타다’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타다04: 복이나 채주, 운명 따위를 선천적으로 지니다’에 해당한다.

② ‘타다06: 악기의 줄을 통기거나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다’에 해당한다.

③ ‘타다07: 부끄럼이나 노여움 따위의 감정이나 간지럼 따위의 육체적 느낌을 쉽게 느끼다’에 해당한다.

13.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의 상황은 아무 관계도 없이 벌어진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된 경우이므로 ②의 ‘오비이락(鳥飛梨落)’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금상첨화(錦上添花):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 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고진감래(苦盡甘來):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올 것을 이르는 말.

④ 일거양득(一舉兩得):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

14.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의 ‘도청도설(道聽塗說)’은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길거리에 퍼져 돌아다니는 뜬소문을 이르는 말이다. 반면 ②의 ‘심심상인(心心相印)’, ③의 ‘염화미소(拈華微笑)’, ④의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모두 ‘말로 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을 의미하는 동일한 사자성어들이다. 이 밖에도 ‘교외별전(敎外別傳), 불립문자(不立文字), 염화시중(拈華示衆)’ 등이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자성어들이다.

15. ②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의 ‘털을 뽑아 신을 삼는다’는 ②의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꼭 갚겠다’는 말’을 의미하는 속담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③은 북한 속담인 ‘털도 내리썰어야 빛이 난다’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는 ‘털도 안 뜯고 먹겠다 한다’라는 속담에 해당한다.

16.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대수로이[부사] 중요하게 여길 만한 정도로. (예) 대수로이 여기지 않다.

17. ①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의 전체적인 논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자유를 위해 개인은 사회적 제약과 억압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거리를 두는 순간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소외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독감·소외감·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로부터 도피’를 감행한다.’ 이처럼 이 글은 ‘이와 같은’을 중심으로 원인과 결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18.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정준의 장편소설인 ‘당신들의 천국’의 공간적 배경은 나병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원이

있는 전라남도 고흥군의 ‘소록도’이며, 나머지는 모두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19. ④

- 정답이 정답인 이유

㉠과 ㉡은 청자가 속한 저승과 화자가 속한 이승 간의 거리감과 단절감을 나타내며 여기서의 ‘바람’은 모두 화자와 청자 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단절의 매개체를 의미한다. ㉢은 ‘동아뱃줄’이 의미하는 ‘이승에서의 인연’이 다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이 구절의 의미도 ㉠, ㉡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은 ‘우리가 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연은 (화가가 위치한 강 이편에서 청자가 위치한 강 저편으로) 갈대밭을 건너가는 바람처럼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뜻이므로 재회에 대한 소망이나 확신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의 ‘바람’은 ㉠, ㉡의 바람과 동일한 의미의 시어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 ③

-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는 이개의 시조로서, 대상과 이별한 이별의 슬픔을 ‘춧불’에 감정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이와 가장 유사한 정서는 ‘이별의 정한과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계랑의 시조 ③에 나타나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고려 말 이조년의 시조로서 주제는 ‘봄밤의 애상적 정서’이다.

② 고려 말 우탁의 시조로서 ‘늙음에 대한 한탄’을 주제로 하는 ‘탄로가’이다.

④ 조선 전기 정철의 <훈민가>의 제8수로서 ‘옳은 일에 대한 권장’을 주제로 하고 있다.

<해석>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을 하자꾸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지 못하다면

짐승에게 갓이나 고깔을 씌워서 밥을 먹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